

보혈의 단비가 내립니다!
2009년 제3차 청지기훈련

일시: 2009년 10월 23일(금), 저녁 7시
주제: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
(누가복음 23:34)
강사: 김성관 위임목사

2009년 제3차 청지기훈련이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양집회 시에 열립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였기에 더욱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실 위임목사님과 보혈의 은총으로 풍성한 청지기훈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느 1:11). 특히 청지기훈련 당일에 적절한 날씨와 각 성도의 가정에 변함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시 141:5). 영아를 비롯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 예배공간도 별도로 마련하였으니 그 가족은 물론 가까운 친지나 이웃들과 함께 서둘러 나오십시오. 교회 근처의 성도님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차량 안내부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어어 있게 하시리라”(행 20:32).

*청지기훈련 인내는 7면 참조

제42대 장로 · 제22대 안수집사 · 제50대 권사 임직예배
이번 주 수요일(10월 21일) 저녁 7시

제42대 장로 · 제22대 안수집사 · 제50대 권사 임직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2부예배 시에 있습니다. 모든 피택자는 지난 6개월 간의 정규교육을 잘 이수하였고, 노회와 당회의 시험 및 면접을 통과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이며 대답이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들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골 1:25).

2010년 교회일꾼 확정

2010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새 일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모든 성도와 함께 기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엡 3:7). 세워진 일꾼들이 각 위원회 및 각 부서에 속하여 섬길 때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도록 모든 성도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2010년에도 탁월한 능력이나 경험, 세상적인 지식보다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고전 2:2) 믿음의 전진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일(10월 25일) 종교개혁주일 및 제5차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유아세례는 오후 3시 갈릴라움)

*2010년 교회일꾼 명단은 5면 참조

장로피택자 추제발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그 예언과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요 5:39).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딤후 3:15).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예언과 성취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분에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류구원을 위한 유일한 속죄제물이 되셨다(막 10:45).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롬 5:21).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그 예언과 성취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은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은혜의 연속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만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막 28:18~20).

죽음과 부활	구약 예언	신약 성취
1. 하나님의 아들	시 27	마 16:16 / 히 1:5 / 벧후 1:17
2. 약속된 대속자	시 130:7~8 / 시 59:20	갈 4:4~5 / 딤후 2:13~14
3. 예수님은 조롱받으시며 매 맞으셨다	사 50:6 / 미 5:1	마 26:67
4. 예수님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 53:9,12	막 15:27
5. 우리의 죄와 함께 때려받으셨다	사 53:4~5	마 8:17 / 히 13:12
6.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셨다	사 53:10~11	롬 6:23 / 엡 1:7
7. 예수님은 부자와 함께 매장되셨다	사 53:9	마 27:57~60
8.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시 16:10~11	눅 24:6~7 / 행 2:32
9.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다	시 86:13	행 2:24 / 고전 15:3~4
10. 사미이 멸망 당하셨다	사 26:8 / 호 13:14	고전 15:54~57 / 딤후 1:10

승천과 재림	구약 예언	신약 성취
1. 죄 없으신 양이 인도하셨다	사 53:7~8	요 1:29 / 벧전 2:25
2. 높은 곳에 오르셨다	시 68:18	막 16:19 / 딤후 3:16
3. 중보자가 되셨다	사 53:12	눅 23:34 / 딤후 2:5
4. 변치 않으신 영원하신 분	시 102:25~27	요 8:35 / 딤후 2:10 / 히 13:8
5.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시 110:1	막 16:19 / 벧전 3:22
6. 멜기세덱의 제사장	시 110:4	히 5:6, 6:20
7. 머릿돌	시 118:22	눅 20:17 / 벧전 2:4~7
8. 모든 민족에게 회개의 길을 주신다	사 22:4~4	눅 24:47 / 눅 13:3
9. 공의로로 대량, 우리의 빛	말 4:2~3	막 1:7~9 / 엡 5:14 / 요 8:12
10.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단 7:13~14	마 24:30~31 / 계 22:12,20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주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책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다(골 2:15).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요 14:6). 구원의 유일한 길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다(히 12:2). 다른 선택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며, 대답이다. 아멘.

Sermon for Next Sunday

DO YOU HAVE THE HOPE OF GLORY?

*to whom God willed to make known what is the riches
of the glory of this mystery among the Gentiles,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Colossians 1:27)*

The mysteries of God's grace were unknown in Old Testament times, but became known only by divine revelation of the indwelling of Christ. In today's Bible verse the Apostle Paul told the Colossian church about the biggest secret of God's grace,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Col. 1:27). He explained to them that this great mystery was hidden from the past ages and generations, "but has now been manifested to His saints" (Col. 1:26). So many religious people had sought to discover the secrets of God's grace, like Isaiah and Jeremiah, but could not. We have the privilege of knowing them, and it is so sad and wrong that we don't really appreciate their importance. For example, the rapture of the church was a mystery unknown in the Old Testament, but now revealed in Christ,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1Cor. 15:51). Jew and Gentile becoming equal heirs of God's kingdom was also a mystery unknown in the Old Testament, "For I do not want you, brethren, to be uninformed of this mystery — so that you will not be wise in your own estimation — that a partial hardening has happened to Israel until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has come in" (Rom. 11:25). The gospel of Christ touching all people was an amazing part of God's grace, "Now to Him who is able to establish you according to my gospel and the preaching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revelation of the mystery which has been kept secret for long ages past, but now is manifested, and by the Scriptures of the prophets,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the eternal God, has been made known to all the nations, leading to obedience of faith" (Rom. 16:25-26). The mystery of Christ within the believer is the hope of glory. People talk about their hopes all the time. What kind of hope do you have right now?

Do you have false hope? Everyone who places their hope in this life only has false hope. 1 Corinthians 15:19 says, "If we have hoped in Christ in this life only, we are of all men most to be pitied." So many people place their hope in here and now, ultimately making themselves miserable. The rich young man who came to Jesus and talked about truth found out that he was attached to material things, "But when he had heard these things, he became very sad, for he was extremely rich" (Lk. 18:23). Many people are like this young man, thinking money is everything. Matthew 6:24 says,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wealth." Some people hope in their intellect, thinking education answers all their needs. Some people hope in their physical abilities, thinking their

own power can handle any crisis. Some people hope in religious ceremonies or their own good works, thinking this satisfies God's requirements. Paul says in Philippians 3:18-19, "For many walk, of whom I often told you, and now tell you even weeping, that they are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whose end is destruction, whose god is their appetite, and whose glory is in their shame, who set their minds on earthly things." Please set your heart and mind on the things above. Let your hope be a true hope in Christ.

Do you have no hope? Everyone who lives without Christ has no hope. No matter how much you talk about your hopes, to live without Christ is to die without hope. Hope is tested at death, during your last breath. Earthly success will be of no comfort to you then. Ephesians 2:12 says, "remember that you were at that tim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and strangers to the covenants of promise, having no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Unbelievers have no hope, "But we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brethren, about those who are asleep, so that you will not grieve as do the rest who have no hope" (1Thes. 4:13). Believers do not sorrow like the lost ones. Comfort at death is only for believers. Eternal promises are only for Christians. There is no promise of hope for those who die in unbelief. Unbelievers may act like all is well, but the exact opposite is true, for once their last breath is taken the agony of eternal death falls upon them.

Do you have the hope of glory? Everyone who believes in Christ has the hope of glory! If Jesus Christ is in you, you have the hope of glory! Never forget it and always believe it. This hope is a confident expectation. It is not a foundationless hope, but a hope secured in the foundation of Christ. Christ's resurrection brings living hope,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1Pet. 1:3). This is the Christian inheritance. All the suffering of earthly living finds its end in wonderful glory. Paul says, "For I consider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at is to be revealed to us" (Rom. 8:18).

My dear friend, please invite the living Christ into your life. Open your heart to God's eternal grace and love, and choose the hope of glory. The riches of this revealed mystery of God's glory is Christ in you. Do you have Christ in your heart? What can be more important to you than the hope of glory? Make Jesus Chris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and experience the blessings of wonderful hope. Amen. ▣

| 다음 주일 설교 |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27)



김성관 목사

구약 시대에는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가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거룩한 계시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의 비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 그는 이 놀라운 신비가 지나간 시대에는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골 1:26).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많은 신앙인은 하나님 은총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애썼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영광스런 변화는 구약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비였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치 내가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하리니 다 변화되리라”(고전 15:51).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리라는 것 또한 구약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총명한 수가 들어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롬 11:25).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과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롬 16:25~26). 신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소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너지는 소망

여러분은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의 소망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19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많은 사람은 지금 당장의 삶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더욱 불쌍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리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던 한 부자 청년은 자신이 물질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눅 18:23). 많은 사람이 이 청년처럼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24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미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지식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위기든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강인한 체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예식이나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18~19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위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자는 아닌가?

여러분은 혹시 소망 없는 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소망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소망 없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죽음의 순간에 겹칩니다. 그 때에는 세상적인 성공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12은 말씀합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살전 4:13). 신자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자들뿐입니다. 영원한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죽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소망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행동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단 그들의 마지막 숨이 멈추게 되면 영원한 죽음의 고통이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결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 소망은 확실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근거 안에 보장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 소망을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므로 그의 값으로 구출되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둬다가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은 결국 놀라운 영광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롬 8:18).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과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취하십시오. 풍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 무엇이 영광의 소망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소망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수요1부예배 메시지
(2009. 10. 14)

변치 않는 것 (히브리서 6:17~20)

서 가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히 6:19~20).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린 자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자.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였다. 40여 년이라는 긴 광야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였다(창상 8:56). 그럼에도 아론과 미리암을 비롯한 모든 백성은 변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사람들과 속에서 모세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고(시 93:2).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저소가 되시니(히 6:19~20).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린 자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 역시 말망하지 않는다(말 3:6). 그러나 인간의 죄 된 본성은 항상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우선한다. 금방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세상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롬 1:21~22, 25). 진심으로 회개하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 1:16)라는 말씀대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자. 온 세상은 변하여 우리를 버리겠지만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시 119:89).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사 40:8). 문화와 전통, 환경과 분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찾아다니다. 그러나 말씀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히 6:16). 그러나 진즉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중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 주시려고 맹세로 보충하셨다(히 6:17).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히 6:18). 이 은총의 약속과 불변적인 맹세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그리로 앞서서 가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히 6:19~20).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린 자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자.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위기에 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 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지라도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태서는 안 된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변한다. 오직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는다(요 10:35).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가? 문제는 우리 자신의 고만과 자존심이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열망 때문이다. 진심으로 회개하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복음 즉, 복된 말씀은 불변하며 구원을 위한 유일한 열쇠이다.

●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히 13:8).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쫓아내시며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다(히 1:3). 예수님은 죄 사함의 은총을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손을 빌려 성소가 아니라 바로, 하늘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히 9:24).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다. 우리 함께 진심으로 회개하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리라”고(히 9:12) 하는 그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히 7:24~25).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계 1:18).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딤후 2:5)은 영원하시다.

● **주님의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한다. 그리스도의 뒤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심령에 심기기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마 16:18).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다(골 5:23~25).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와 근본이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로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 1:18).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자신과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한다. 신학, 철학, 의학, 윤리, 문화, 정권, 교육, 교회까지 세상에 속한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리스도께 속할 때 절대로 불변한다.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 때 영원하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깨뜨려 주소서.” 아멘.

메시아의 죽음 ⑤

예수의 고난이 주는 신학적인 위치 (누가복음)

절한 기도 후에 누가는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하였다고 밝혔다(눅 22:42~43). 또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맞이한 최후의 순간에도 “아버지 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라고 예수님은 절박했던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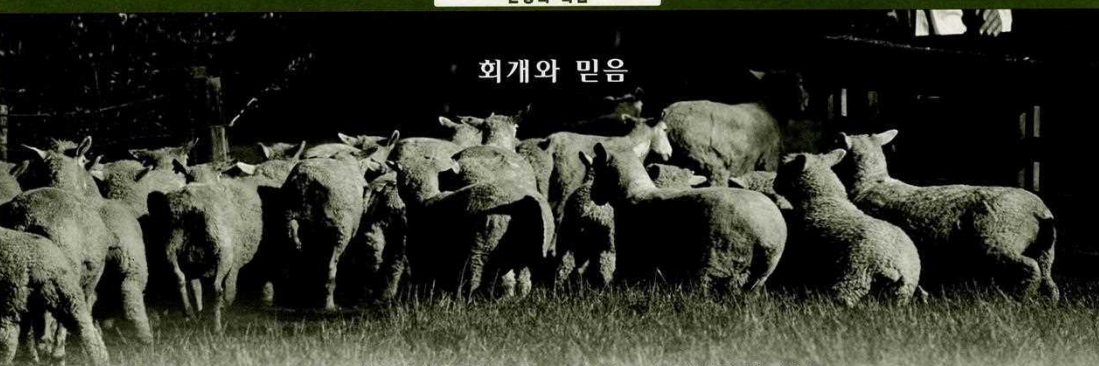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마태와 마가와는 달랐다. 마태와 마가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도망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부각한 반면에 누가는 제자들의 계속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으며 변화될 것을 예고하셨다(눅 22:32). 특히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눅 22:61). 이와 같이 누가는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음을 밝혔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모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 22:28~30).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고난의 현장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셨다(눅 22:51, 23:48~49). 또한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기록하였다(눅 24:53).

누가는 복음을 폭넓게 기술하였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그의 관점은 긍정적이었다. 특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열매를, 자들 자신의 또 다른 저술인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였는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던 스테반 집사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다(행 9:59~60).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 받는 바울의 모습은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던 예수님과 비슷하다(행 24:3).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누가복음)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인(사도행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연결시켰다. 열리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내의 많은 유대 과부 대신에 이방인 과부를 찾아 갔다(사 42:1~26). 열리아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대의 많은 유대 나병환자 대신에 이방인을 고쳐 주었다(눅 4:27). 이것은 자신을 메시아(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대신에 버린 자들을 찾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을 선지자와 관련하여 깊게 표현하였다(눅 6:23, 7:16, 52, 9:8, 13:33~34). 예수님이 결코 신은 분명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과 핍박, 참혹한 죽음이 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세상에서의 안락적인 삶과는 멀어진다(눅 12:49, 51). “예수를 거슬러”라는 누가의 표현처럼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행 4:25~27).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에게 초점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오직 참으로 대미스 간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믿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아멘.

*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새벽 4:40)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지난 몇 개월 동안 금요찬양집회를 통해 주신 말씀은 '회개'였다. 나는 그 동안 나의 믿음에 회개가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더불어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점과 고통스럽게 죄의 집에 눌러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내가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죄의 집에 눌러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에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었고, 나 잘못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었다.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려고 불독고 있음을 알게 하셨다.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얻으려 회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참 자유 허락하소서, 사람의 구주여 자비 베푸소서, 은혜의 구주여 자비 베푸소서." 회개에 대한 말씀은 나의 입술에서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었다.

주님은 9월부터 금요찬양집회에서 내가 눌러 있는 죄의 문제 가운데에 다시금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나는 죄의 문제와, 그와 연관되어 사람의 문제 가운데에 놓여 있고 나쁜 아니라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롬 5:12). 죄의 삶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외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하셨다. 또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마지막 원수인 사람의 권세마저 깨뜨리셨

고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롬 1:16~17).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담으로 인하여 사람이 왕 노릇하였으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령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다(롬 5:17). 살아서 누리는 유한한 생령이 아니라 죽어서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령을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 외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요 또한 그분을 믿을 때 가능하다. 믿음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오직 믿음을 붙들고 구하길 원한다.

회개와 믿음은 지체의 양면과도 같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다. 회개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회개 없다는 말씀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믿음에는 회개가 기초되어야 하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령 얻는 회개가 있는 참 믿음을 갖길 원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하신다. 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은혜이고 은총이다.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나는 죽어지는 믿음을 구하는 내가 되길 기도한다.

김현정(대북부)

한 번 와 보시겠어요?

교구 총동원 전도집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 잔치와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가 연상된다.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어 어떤 임금과 같이, 종들을 보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여 오게 하는 말씀이다. 나는 총동원 전도집회를 주님이 부르시는 잔치라는 마음이 들어 누구를 초청하여 모셔 와야만 하는 부담감을 늘 떨칠 수가 없어 기도하게 된다. 어느 때는 시동생을 불렀고 또 어느 때는 동네 세탁사 아저씨를 모셔오기도 했고, 또 어느 때는 성당에 다니시는 열집 아저씨를 모셔오기도 했다. 친구도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초청해야 하나?' 생각하고 기도해도 마땅히 모셔올 분이 없었다.

늘 전도지를 들고다니며 가끔씩 지하철에서 전하는데 마침 경로석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아저씨를 보고 전도지를 드리면서 "한 번 와 보시겠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오시겠다는 것이었다.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전도집회까지는 10여 일이 남았는데 2~3일을 앞에 놓고 그분께 다시 확인 전화를 하니 오시겠다고 하셨다. 드디어 9월 20일, 주일에 그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정말 반가웠다. 주님도 기뻐하셨으리라! 그분은 말씀과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느라고 하며 가셨다. 아무쪼록 예수님 잘 믿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이다.

오화자(권사, 18교구)

진정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매년 두세 명씩 전도를 하였는데 지난 1월에 한 명을 전도한 뒤로 이제껏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불충한 모습이 되어 마음만 급해서 누구를 만나는 "저는 총현교회 성도입니다. 교회 나가시죠?"로 말문을 열지만 정작 회사업무 상담에 더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모습을 고치시고 정결케 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 지방에서 이사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이 교회, 저 교회를 친구 따라 다닌다는 거처해 고객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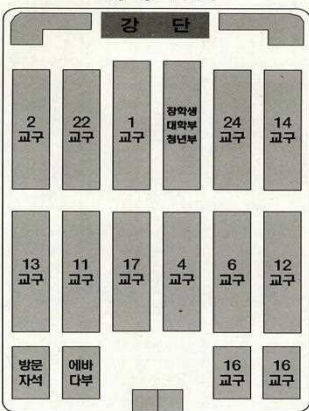
그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가족을 인도하기로 다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어머니와 두 딸을 인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같이 국수를 먹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뒤 교구 총동원 전도집회로 안내하였습니다. "주의 친절함 끝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라고 찬송을 부르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뻐하는 새가족들을 보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 복음과 믿음에 대해 말씀을 듣고 타 교회 축복설교와 다른 설교에 대해 새삼 놀라며 질문하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지랑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강홍선(안수집사, 19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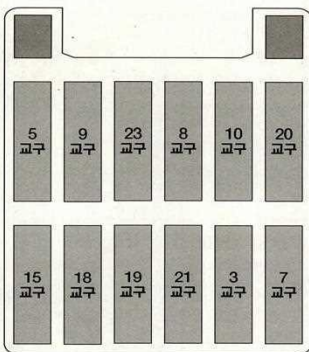
청지기훈련좌석 / 땅끝까지

청지기훈련 좌석 및 안내

본당 1층 좌석배치



본당 2·3층 좌석배치



- 탁아부실(선교관 1층, 0~3세:작은 방, 4~7세:큰 방)을 운영하오니 이용하시고,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영아부실(제1교육관 1층, 3세 이하), 베다나홀(본당 1층, 8세 이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로에 주차하신 분은 서둘러 차량을 이동하시고, 차량안내부의 모든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는 반드시 차량안내부의 지시에 따라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교회 주변 도로에 주차 시 주정차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견인됩니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89	김정식	23	청년1부	박민희(24)	1404	최종호	9	청년1부	이민수(22)
1390	박영호	24	청년1부	한민희(24)	1405	김소연	2	청년1부	윤소은(2)
1391	황선민	20	중동2부	박순민(10)	1406	조혜영	17	청년2부	박재영(11)
1392	박범수	19	중동부	유주연(19)	1407	최종희	17	청년2부	박재영(11)
1393	이옥은	13	청년4부	전현숙(11)	1408	김도영	10	청년2부	강영재(24)
1394	박미선	19	중동부	김민정(19)	1409	서정호	25	애니부	반재희(25)
1395	김재미	20	중동부	김문진(20)	1410	김선순	11	청년1부	김동희(22)
1396	김지수	21	청년1부	최현희(24)	1411	이미애	11	중동부	김동희(22)
1397	박옥지	24	청년3부	남영애(24)	1412	이지애	11	초동2부	김동희(22)
1398	김은희	7	청년1부	이민순(7)	1413	남혜진	22	고동부	조혜영(11)
1399	최태식	23	청년2부	이찬재(3)	1414	조혜영	2	청년2부	최영림(24)
1400	박병화	24	청년1부	김종현(24)	1415	조혜영	10	청년2부	이성훈(5)
1401	김태경	10	청년1부		1416	송영석	15	청년2부	김하경(115)
1402	장수현	11	청년부	강영재(24)	1417	최수진	6	청년4부	김선미(6)
1403	김선아	22	청년1부	문민석(16)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 중언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12일(월) ~ 10월 21일(수)	16교구 4팀	이정현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5일(월) ~ 10월 13일(화)	20교구 3팀	김기홍
10월 6일(화) ~ 10월 14일(수)	22교구 3팀	구창희
10월 7일(수) ~ 10월 15일(목)	1교구 3팀	이윤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비행기에 내려 8시간을 비포장도로를 달려 사역지에 도착했다. 저녁 8시에 도착하여 숙소를 구했으니 구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주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숙소가 있었다. 원래 예정한 곳에서 50km 떨어진 곳이었다. 우리는 현지인의 안내를 받으며 암흑 같은 사막을 2시간 가량 달려 밤 11시경 도착하니 철쭉 같은 사막 한가운데 이동식숙소 10채 정도가 희미하게 보였다. 한순간 팀원들은 공포감에 휩싸였으나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지'라는 선교구호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예수님께서는 팀원들이 지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역지에 도착해 서부터 고난을 주신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사막의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게 해 주셨다. 수많은 별들을 보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다.

다음 날부터의 현지 사역은 순조로웠다. 오지에 사는 순박한 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하면 흔쾌히 응해 주었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며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라고 생각되었다. 95%가 라마불교 신자인 이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하루 빨리 이곳에 뿌리를 내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길 계속 기도할 것이다.

박건일(집사, 15교구)

우리, 예수 믿읍시다

"아기가 참 예쁘네요." "예, 고맙습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난 몰라." "이리 주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할머니는 글도 몰라요." 지난 8월, 무척이나 무더웠지만 교회주변 전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엔 왼쪽 절반의 근육이 수축되어 보행이 어렵다고, 비 오는 날엔 한 손으로 우산 들고 나면 전도지 건넌 손이 없다고 이래저래 놀고 먹어 부끄럽던 저에게 교구장 장로님은 전도 후 냉면 한 그릇 하자고 한 식당에 먼저 가 있으라며 전도지 몇 장을 주셨습니다.

포스코 본사 뒤 오르막길을 땀을 흘리며 걸어 올라와 식당 앞까지 왔는데도 전도지 한 장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식당으로 들어갈까 했지만 손에 쥔 전도지가 아까워 길을 따라 더 올라갔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학생들까지 지나가고 있었지만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모두 멀리 달아났습니다. 언덕 아래서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젊은 부부와 백발의 할머니, 그 뒤에 시골서 오신 듯한 제 또래 초로의 남자분 등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4대가 주말 음식을 마치고 오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뭐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데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날 저녁, 그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영혼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총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장택(인수집사, 20교구)

